



◆ [Focus]

- (경제전망) 美 3분기 국내총생산(GDP) 성장률 발표에 따른 경제전망

◆ [What's News]

- (대중규제) 미 상무부,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참여국 확대 노력
- (IPEF) 캐나다,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(IPEF) 가입 의사 발표
- (IRA) 미국-EU, IRA 이슈 논의를 위한 TF 발족 발표
- (인플레이션) 달러 강세 여파에 거대 전자 상거래 기업 아마존도 실적 부진

FOCUS

1. [경제전망] 美 3분기 국내총생산(GDP) 성장률 발표에 따른 경제전망

□ 美 상무부 경제분석국(BEA), 2022년 3분기 GDP 성장률 발표(10.27)

○ BEA는 2022년 3분기 GDP가 2.6%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보고

- 보고서는 3분기 GDP가 2.6%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1·2분기 각각 -1.6%와 -0.6% 역성장 결과와 대조적이라고 분석

* 이번 GDP 성장률 계산은 수출, 소비지출, 비거주용 고정 투자, 정부 지출의 증가와 주거 고정 투자, 민간 투자, 수입 감소를 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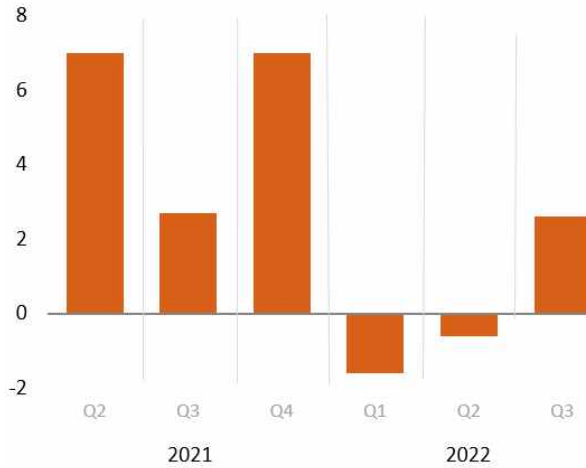
- 3분기 GDP 성장 원인 중 산업 공급, 원자재(석유 관련 제품, 기타 비내구재), 비 자동차 자본재의 수출 증가를 꼽으며 여행, 금융 같은 서비스의 증가도 수출 성장을 주도했다고 지목

- 특히, 美 소비자 의료 서비스 지출 증가, 지적재산 상품 관련 투자 성장, 연방·주·지방 정부 공무원 보수 증가, 국방비 증액 등이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을 이끌었다고 발표

- 하지만 **상품(식품, 음료, 자동차 및 관련 제품)생산량 하락, 신규 주택 건설과 중개 수수료 감소, 민간 투자 감소 및 수입 하락은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**

<2021~2022 분기별 美 GDP 성장률 변화>

Real GDP: Percent change from preceding quarter



U.S. Bureau of Economic Analysis

Seasonally adjusted annual rates

- * 2022년 1분기와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3분기 실적은 플러스로 전환
[출처 : 경제분석국(BEA)]

- 보고서는 연내 물가상승으로 소비자 지출 둔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와 비슷한 성장률 기록을 관측
- * 전년 3분기 GDP 성장률 부진은 3분기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등에 따른 소비 위축과 공급망 마비에 따른 것으로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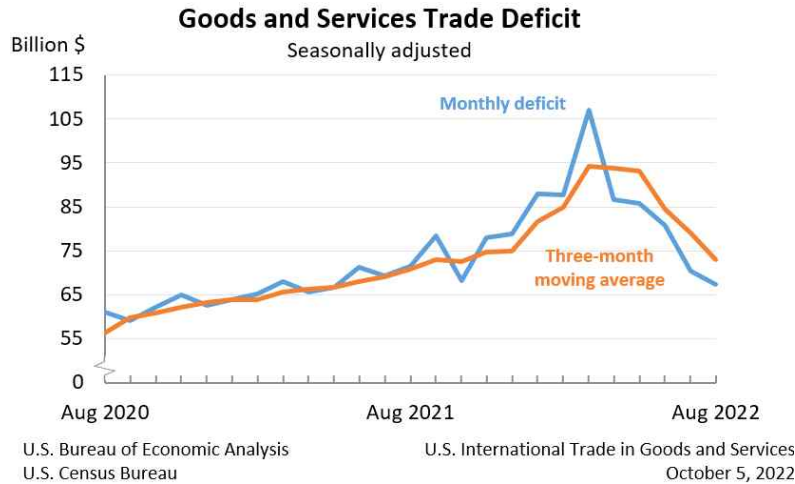
□ 3분기 GDP 성장률 발표 예측과 침체 우려 지속에 대한 견해 차이

○ 여론의 예상보다 높은 공식 발표에도 의견 차이 지속

- WSJ가 보도한 경제학자 분석에 따르면 3분기 GDP 성장률은 2.3%로 예상되었으며, 올해 초반 위축세에서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(10.27)
- 특히, 7월과 8월 美 무역수지 적자 감소가 지표상 수출 증가로 나타나며 3분기 GDP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
-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GDP 성장률이 실제 무역량의 변화를 담고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 영향이 없었다고 지적

<2020 ~ 2022 美 무역수지 변화>

(단위 : 10억 달러)



* 2022년 7월과 8월 무역수지 적자율이 전월 대비 각각 12.6%와 4.3% 하락

[출처 : 경제분석국, 통계국]

- 이어, WSJ은 2023년 1·2분기 GDP가 2022년 동기 대비 0.1 ~ 0.2% 가량 하락할 것으로 분석하며 소비심리의 하락으로 이어지며 내년 2·3분기를 기점으로 일자리 감소세와 경기 둔화를 우려
- 또한 현재 강세를 보이는 노동시장도 경기 침체에 따라 3만 개 일자리가 소멸되어 2024년까지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
- 하지만 폴리티코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예상치와 비슷할 경우 미국 내 경기 침체 우려 여론이 일축될 것이라고 보도(10.27)
- 이어, 바이든 정부가 견고한 소비자 지출, 낮은 기업 도산율을 예로 들며 경제 침체 여론을 부정할 것이라고 분석

□ 3분기 GDP 성장률 발표와 경제 침체에 대한 엇갈린 반응

○ 성장률 발표 이후 연일 요동치는 주식시장(10.27, 10.28)

- 3분기 GDP 성장세 발표 이후 연준의 11월 금리 인상 예고, 아마존, 페이스북 등 대형 기술기업들의 부정적인 3분기 실적,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급등으로 10월 28일 주식시장은 하락세로 마감
- 하지만 10월 29일 주식시장은 개장 이후 상승세 기록 중(오후 2:30)

○ 경제 지표들의 엇갈린 전망에 혼란 가중

- 마켓워치는 9월 신규 주택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.9% 하락하며 8월의 회복세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보도하며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인상으로 많은 미국인이 주택 구매를 포기하고 있다고 분석(10.26)
- 경제분석국은 9월 근원 개인소비지출(PCE)이 전월 대비 0.3% 상승했다고 발표하며 전년 동월 대비 식품을 제외한 상품의 값이 8.1%, 식품과 에너지값이 10~20% 정도 상승했다고 발표
- 하지만 주간 실업수당 신청 수와 월간 실업률은 고인플레이션과 물가상승에도 노동시장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

* 월간 실업률은 2022년 1월 4.0%를 기록한 이후 9월 3.5%로 하락세 유지 중

○ 연준의 11월 추가 금리 인상과 중간선거에 대한 언론의 반응 및 예상

- 폴리τικο는 정부의 3분기 GDP 성장세 발표에도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며 유권자들은 지속되는 국제문제, 미국 내 소비자 체감 경제 회복 신호를 약하게 느낀다고 지적
- 기사는 여론이 '금리 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'와 '경기 침체 회피' 사이에 나뉘어있다고 보도하면서 연준이 선거 결과에 상관 없이 금리 인상으로 계획적인 경기 둔화를 준비 중이라고 분석

* 자료 : BEA 경제분석국(10.27), 월스트리트저널(10.27), 폴리τικο(10.27) 등 현지 언론 보도자료

□ (대중규제) 미 상무부,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참여국 확대 노력

- 앨런 에스테베즈 상무부 산업·안보 차관은 신미국안보센터(Center for the New American Security) 행사에서 수출통제 동향 언급
 - 동맹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안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특히 네덜란드와 일본의 반도체 생산장비 기업의 참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
- * 세계 반도체 장비업계는 Applied Materials·KLA 등 미국 기업과 일본 도쿄 일렉트론, 네덜란드 ASML 등이 주도
 - 고강도 대중 수출통제 범위를 양자컴퓨터, 바이오, 인공지능 분야 등으로 넓히기 위해 주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

* 자료 : 뉴욕타임스(10.27), 신미국안보센터(10.27)

□ (IPEF) 캐나다,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(IPEF) 가입 의사 발표

-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의 기자회견에서 캐나다의 IPEF 가입 의사를 공표
 - 블링컨 국무장관은 캐나다의 IPEF 가입 의사를 환영했으며, 다른 IPEF 참여국들과도 캐나다의 가입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언급
 - 현지 언론은 캐나다가 TPP, CPTPP 등 아시아·태평양 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국가인 만큼 IPEF 4대 의제(Pillar) 중 많은 부분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
 - 공동 기자회견에서 졸리 장관은 IPEF 가입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의 경제적 유대 관계를 심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탄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.

* 자료 : 인사이드트레이드(10.27)

□ [IRA] 미국-EU, IRA 이슈 논의를 위한 TF 발족 발표

- 미국과 유럽연합(EU)은 미국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(Inflation Reduction Act)을 논의할 태스크포스(Task Force)를 다음 주에 공식 출범한다고 발표
 -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,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안보담당 고문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(Ursula von der Leyen) 유럽위원회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
 - 이번 TF에 미국 측에서는 USTR, 백악관, 국무부, 재무부, 상무부 등 미국 정부 전반에 걸친 고위급 참여가 예상되며, EU 제조업의 기회와 우려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촉진하고 기후변화의 공동 대응을 위한 이해 증진 등을 포함
 - 지난 8월 통과한 IRA에 따르면, 올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, 보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EU, 한국 등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

* 자료 : 인사이드트레이드(10.26)

□ [인플레이션] 달러 강세 여파에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도 실적 부진

- 아마존, 달러 강세 및 소비 심리 위축에 3·4분기 실적 부진 전망
 - 아마존의 3분기 매출은 작년 대비 14.7% 늘었음에도 시장 예상치인 1,276억 달러에 못 미치는 약 1,27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, 순이익 또한 작년 대비 9% 감소(약 28억 달러)를 기록, 주가는 28일 기준 11% 하락
 - 아마존은 본 실적 부진 이유로 계속되는 달러 강세에 타국 통화를 통한 판매 수익이 하락하여 약 50억 달러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밝힘.
 - 월가는 블랙 프라이데이 및 연말 특수 등 미국인의 상품 구매가 늘어나는 4분기에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을 예상, 4분기 실적 역시 부진할 것으로 전망

* 자료 : 블룸버그(10.28)

Notice

□ 주요 경제통상 일정

※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에 공개됩니다.

□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

- (행사안내) 2022 국제기구 주요기업 등 청년 취업설명회(11월 3일, 워싱턴DC)
- (자료발간) IPEF 9월 장관회의 세부 내용 및 현지반응(US22-35)
美 연방준비은행 페드나우(Fed Now) 출시 전망 및 시사점(US22-34)
미국의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 광물 확보 전략(US22-33)
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(US22-기획4) * 10월 말 공개
미국 프렌쇼어링 정책 심층분석과 시사점(US22-기획3)
- (인터뷰) 미국 상공회의소 Charles Freeman 선임부회장 인터뷰 업로드 예정(11월 초)
메릴랜드주 래리 호건 주지사 인터뷰 Youtube 업로드 예정(11월 초)

